



존, 칼빈의 生涯와 그 教育研究

이 기 철

- 一. 序 論
- 二. 칼빈의 生涯
- 三. 칼빈의 教育
 - 1.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칼빈의 견해
 - 2. 칼빈의 教育적 영향
 - A. 성경교육에 미친 영향
 - B. 인문주의 教育에 미친 영향
 - C. 생활교육에 미친 영향
 - D. 칼빈의 중요한 教育사상
- 四. 結 論

一. 序 論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종교개혁 사상에 바탕을 둔 청교도 정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각기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칼빈주의 사상을 소유한 것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으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친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다. 그들은 먼저 무엇이 하나님께



90 教育論叢(IV)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였다. 이같은 바른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가 이미 한세기가 지난 오늘 도대체 무엇이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지표인가를 생각할 때 종교개혁과 청교도적 신앙의 부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그 이유로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처음 복음을 받을 당시의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의 뜻은 비성경적이고 비개혁주의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실용주의를 추구한 나머지 성경진리나 개혁주의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 보다는 ‘핑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실용주의를 채용하게 되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拜金主義와 몰량주의 사상에 깊숙히 빠져 있다. 信, 不信을 막론하고 배금주의에는 차이가 없어져 가고 있다. 정당한 노력의 댓가를 지불함이 없이 불로소득이 기독교의 윤리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간주하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물질이 모든 것의 우선권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는 眞理나 正義는 헌신짝처럼 버린다. 교회의 숫자나 신학교의 숫자 그리고 교인들 숫자는 최근 10여년 동안 상당히 증가되었으며, 교회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사상이나 세속주의 사상은 더욱 팽배해 가는 것만 같다.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아니고 내부로부터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배의식은 점점 복잡해 권위주의적이며 의식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오늘의 정황은 종교개혁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한국교회는 이때야말로 청교도적 신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늘의 교회는 택함받은 자란 기득권만을 행사하려 하고 실제로는 이웃과 아픔을 나눌 줄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전락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영웅주의적 자기 과시를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규



존, 칼빈의 生涯와 그 敎育研究 91

정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선교 제2세기를 향해서 응보를 내딛고 있다. 지난 한세기동안의 부흥과 발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룩되었다면 이제는 나눔과 화해의 새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청교도들이 도덕적 순결과 의를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교회는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찾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인 것을 믿고 삶 가운데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것은 철저한 神前意識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영안이 떠져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중구조로 보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극복하고 삶의 전영역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후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빛과 소금 노릇을 바로 하리라고 본다. 사실상 현대는 말은 풍성하고 논리는 많으나 삶이없다. 삶이 없다는 말은 곧 老化和 죽음을 의미한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청교도적 신앙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오늘의 사회는 유례없이 세속화된 사회이며 유물주의, 인본주의로 전락된 때문이다. 개혁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자들의 모토가 사실일진대 이 절망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과 주의 몸된 교회를 不義와 세속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도 새로운 개혁의지와 청교도적 신앙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그 生涯와 敎育연구를 통하여 새힘을 얻고자 함에 이 논문을 쓰는 목적이 있다 하겠다.

二. 칼빈의 生涯

칼빈이 역사무대에 등장한 것은 실제로 M. Luther와 Zwingli가 사라진 후인 1509년 7월10일 불란서 파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Noyon에



92 敎育論叢(Ⅳ)

서 출생했다. 칼빈의 부친인 Gerard Calvin은 야심 많고 근면했으며 노용 주교의 비서와 수도원 참사회의 공증인으로도 일했다. 그리고 칼빈의 모친 Jeanne Le France는 경건한 생활과 미모로 많은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칼빈의 모친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칼빈에게 신앙적인 깊은 영향은 줄수가 없었다. 칼빈은 카페테스 사립국민학교를 다니면서 귀족층의 자녀들과 친분을 나누었는데 이러한 그의 경험이 후에 그를 귀족층의 풍채를 띤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 칼빈은 14세에 파리대학 신학부에 입학했으며 여기서 종교개혁에 호의적인 Guillaume Cop과 긴밀한 유대관대를 맺는다. 또 함께 공부하던 먼 친척인 P. R. Olivétan은 뛰어난 히브리어 학자로서 칼빈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 칼빈에게 큰 영향을 끼친 교수는 언어학자인 Cordier인데 그는 칼빈에게 효과적이면서 유용한 공부 습관을 길들여 주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종교개혁 정신을 칼빈에게 불어 넣어준 사람이다. 1528년 칼빈은 B.A학위를 취득했고 Orleans 대학으로 옮기면서 법학으로 전과하였다.¹⁾ 이때 칼빈은 종교개혁에 호감을 가진 헬라이어 권위자인 M. Wolmar교수 아래서 배웠다. 칼빈은 교수宅에 머무는 동안 장차 헬라이어에 정통하도록 훈련을 받은 것이다. 1529년 볼마르 교수가 보르게스 대학으로 초빙되자 칼빈도 학교를 옮겨가고 거기서 유명한 법학교수인 A. Alciati를 만나게 된다. 위의 두 교수들은 장차 칼빈이 종교개혁자가 되도록 훈련시킨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결국 칼빈이 법학을 공부한 것은 조직적인 판단

1) John A. Bratt는 이때 칼빈이 신부가 되기보다 법관이 되려고 마음먹은 것은 두가지 이유라고 하였다. 첫째는 배자와 아버지의 강한 권유 때문이고, 둘째는 칼빈 자신이 로마카톨릭 교회의 많은 주장들이 성경과 모순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카톨릭교회를 혐오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The Rise and Development of Calvinism a concise History 칼빈 총서10
(기독교 문화협회, 1986), p. 219.



력과 교회조직을 위해서 유익했다. 그후에 칼빈은 자신의 소원대로 다시 고전을 공부하게 되었고 1531년 파리대학에 다시 등록하였다. 이 기간동안 칼빈은 헬라어 교수인 Danes와 히브리어 교수인 Vatable의 도움으로 최초의 작품인 De Clamentia 주석을 펴냄으로 그의 학문적 재질과 소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로마카톨릭의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칼빈이 언제 회개하고 개종했는지는 분명한 기록이 없다. 다만 제네바시를 카톨릭교회의 영역으로 복귀시키려고 시도했던 추기경 Sadoleto를 반박하는 글인 Replay to-Sadoleto, 1539에서 그의 개심이 약간 언급이 되어 있다.²⁾ 그러나 칼빈이 즉시 로마카톨릭교회와 인연을 끊은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칼빈은 청교도가 되기를 원한 것이지 분리주의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 하였다. 칼빈은 카톨릭교회에 머물면서 교회개혁을 시도했고 복음주의자들과 더불어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는 성경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으로 성경공부 그룹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그에게 드디어 갈등이 오고 결단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칼빈이 개심한 후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파리대학의 철학교수였던 Nicholas Cop이 학장으로 부임케 되었다. 취임사에서 콥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노선에 따라서 당시의 교회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취임사의 내용이 평소 칼빈이 주장하였던 것과 꼭 같았기 때문에 니콜라스 콥과 칼빈이 서로 공모하여 그런 취임사를 작성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것은 칼빈에게 첫번째 시련이었고 양자택일의 기로에 칼빈을 서게 하였다. 그런데 칼빈은 로마카톨릭과 결연하고 개혁자들의 노선에 선 것이다. 프랑스

2) “하나님께서 갑작스런 회심으로 나의 마음을 복종시키셨고 온순한 성격이 되게 하셨습니다” Joanes Calvini, Commentan Liberum Psalmorum(Amsterdam, 1672) p.2

칼빈의 편지 및 논문집으로는 H Beveridge가 펴낸 Selected works of J. Calvin Tracts and Letters(Baker, p.10)가 있다.



94 教育論叢(Ⅳ)

왕이 루터파 잔당을 발본하는데 동조하자 칼빈은 파리를 탈출하여 다시 노용으로 돌아왔다.³⁾ 1534년 10월17일 과격한 복음주의자인 Antonie Marcourt가 천주교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왜곡시키고 있고 교황과 그 추종자들은 적그리스도들이란 플랭카드를 파리 시내 곳곳에 붙여 놓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박해가 파리 전역에 시작되었고 칼빈은 왕의 근거없는 비난에 분노하였다. 칼빈은 누명을 쓰고 물러날 수 없었다. 그래서 칼빈은 피난생활을 하고 있던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1536)을 저술하고 출판하였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서문에서 후렌시스 I세에게 보내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여 놓고 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목적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믿는 신앙을 명백하게 설명함으로써 동료들의 오명을 벗기고 로마카톨릭교도들이 개혁주의 편에 서게 하기 위함이었다.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가장 위대한 기독교 교리의 해석서이다.⁴⁾ 이 책이 나오므로 칼빈은 어느날 갑자기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의 「기독교 강요」는 개신교의 공인된 교리서가 되었고 교백서가 되었다. 그후 이 책은 영어와 화란어등으로 번역되어 유럽 각국에 침투되어 깊은 영향을 주었다. 또 이 책은 100여년 동안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표준 교과서가 되었고 1559년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내용이 확대되고 다듬어져서 최종판은 초판에 비해 거의 다섯배에 이르게 됐다. 국제적 명성을 얻은 칼빈은 1536년 7월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또다른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 Farel을 통해서 칼빈은 생애의 중요한 전환을 맞게 되었고 이로써 종교개

3) 칼빈은 이때 Martianus Lucanus 또는 Charles D'Espeville라는 가명으로 여행하였다. John H. Bratt, op. cit., p. 222.

4) Walker, History of Church, p. 128.

혁의 지도자가 된다. 그전에 이미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1535년 8월 8일에는 후일 칼빈의 주요 일터가 되었던 St. Pierre 성당에서 최초의 개신교식 설교를 행하였다. 그리고 1535년 8월10일 “200인 위원회”는 로마 카톨릭식의 미사를 중지시켰고 동년 11월에는 개혁운동이 제네바시 총회에 의해서 비준되었다. 총회의 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법에 따라 살 것을 선포하였고 모든 미사와 우상과 형상을 포기 할 것”을 선언 하였다.⁵⁾ 바로 이 때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제네바를 운명의 장소로 방문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파렐을 통해서 칼빈을 제네바에서 포로로 만드신 것이다. 그는 후일 회상하기를 “내가 파렐의 조언과 간청 때문에 제네바에 오게된 것이 아니라 제네바에 가지 않게 되면, 나를 체포하여 강제로 제네바로 가게하실 하나님의 엄한 명령 때문에 제네바로 가게 된 것이다”라고 했다.⁶⁾ 칼빈은 그후 1536년 9월부터 바울서신을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칼빈은 그의 동지들과 함께 개혁교회를 조직해 나가기 시작했다. 1537년 1월 16일에는 칼빈이 중심이 되어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항”(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을 만들었고 이것은 후일 교회의 헌법이 되었다. 또 이것은 회중찬송가 도입을 규정하고 찬양예배를 도와줄 성가대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이 조항들은 정부는 교회의 결정사항을 옹호하고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항들은 교회의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한 종교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칼빈은 1537년 교리문답서인 「신앙고백

5) Ibid, p. 179.

6) Calvin Opera Omnia XXXL(Amsterdam, 1667). p. 26.

96 教育論叢(IV)

서」를 작성 하였다.⁷⁾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강력한 지도력은 제네바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고의적으로 적대하는 세력도 생겨서 제네바에서 추방되게 된다. 칼빈의 生涯에 있어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는 애초에 바젤로 가서 학문에만 전력을 기울이려 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스트라스로 가게 된다. 그는 여기서 3년여(1538-1541)머무는 동안 문법학교에서 신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목사후보생을 훈련 시켰다. 이때 로마서 주석을 썼고 추기경 Sadoletto를 반박하는 글을 썼고 “성만찬에 대한 소논문”(Little Treatise on the Holy Supper of our Lord)을 썼고, 「기독교 강요」 증보판을 내었다. 또 칼빈은 목사로서 피난민교회의 500여명의 성도들을 목회하였다. 여기서의 경험이 제네바의 목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고 교인훈련, 성만찬, 회중찬송, 심방, 교회예배의식을 확립하게 되었다. Martin Bucer의 예배의식을 기초로 해서 칼빈의 예배 형태는 예배의 부름, 죄의 고백과 기도, 죄사면의 선포, 십계명 암송, 타원, 감사, 헌신의 기도, 말씀선포, 사도신경의 암송, 축복기도로 이루어졌다. 이런 예배순서는 후일 개혁교회의 예배순서에 그대로 채용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칼빈은 Idelete de Bure 부인과 결혼했으나 행복한 결혼은 불과 8년만에 끝나고 1549년 칼빈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한편 제네바는 칼빈을 추방한 후 지도력을 잃고 개혁운동은 갈팡질

7) 칼빈이 1536년 첫번째 기독교강요판을 내고 1538년 라틴판을 내었는데 그 중간에 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1537)이 출판되었다 Corpus Reformatorum의 본문편집자인 Baum, Cunitz and Reuss는 지적하기를 이보다 이해적 Style인 1538년의 교리문답은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Ford Lewis Battles의 미발표 note인 Jhon Calvin; Catechism, 1538 (pittsburgh; The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1972)을 참고, 이 자료는 아직도 冊으로 출판되지 아니했으나 1538년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영어로 번역한뒤 주해를 붙여놓은 것이다. 또한 J K. S. Reid의 Calvin; Theological Treatises(1954)를 참고할것.



광 하였다. 칼빈이 떠난후 1년이 채 못되어 칼빈이 다시 와야한다는 논의를 했다. 칼빈없는 제네바는 무정부 상태가 판을 치고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하였다. 이때 제네바교회는 칼빈을 필요로 했고 때마침 “Sadoleto에 대한 대답”이 가장 개혁주의 사상을 잘 표현한 위대한 작품이란 칭찬이 자자했던 때였다. 칼빈은 다시 제네바로 가기로 했다. 1541년 9월 13일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돌아오면서 이렇게 슬회하였다. “내 운명을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안이상 나는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다.⁸⁾ 칼빈은 제네바에서 두번째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生涯가 끝나는 1564년까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교회와 국가의 건설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중심의 기독교 공동체의 건설이었다. 칼빈의 목회자요, 대설교가로서, 교수로서, 교회행정가로서, 성경주석가로서, 그리고 신학자로서의 삶은 실로 초인적인 것이었다. 병약한 육체를 가지고, 가정적인 불행을 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권만을 위해 쏟고자 했던 칼빈의 강인한 의지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오던 날 교회를 재조직할 것을 요구했고, 위원회에서는 교회의식서(Ordonnances Ecclesiastiques)란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칼빈이 수정한 후 총회에서 통과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조직체제를 잘 반영했는데 교회의 네가지 직분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등으로 구분하고 그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설명하고 있다. 칼빈의 개혁운동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칼빈에게 노골적인 악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속주의자들은 칼빈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다. 특히 칼빈을 가장 반대했던 자들은 자유사상

8) John McMeil, op. cit., p. 159.



98 教育論叢(Ⅳ)

가들이었다. 도덕폐기론자들과 방탕한 자들과 부정부패한 자들이 칼빈의 종교개혁운동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한 개혁운동은 중단할 수 없었고 그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론과 조직을 통해 이끌고 갔다. 힘겹고 괴로운 투쟁의 나날이었으나 1555년 부터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몰락하고 칼빈은 제네바를 그의 이상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었다. 1559년 칼빈의 소원 하나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유럽의 젊은 이들을 모아 개혁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대학인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자신이 학장으로 취임치 않고 신약성경학자인 그의 제자 Theodore Beza에게 학장의 책임을 맡기고 칼빈은 교수로서 강의하는 것으로 만족했다.⁹⁾ 1559년 3월 5일에 아카데미를 열었을 때 불과 162명의 학생이었으나 1565년에는 1600여명으로 열배가 되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요한 낙스의 지적대로 사도시대 이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 학교였다.¹⁰⁾ 칼빈은 그의 생애중 27년간을 St. Pierre 교회에서 일주일에 5·6회의 설교와 신학강론, 저술, 토론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의 설교는 속기가 되어서 출판되었고 유럽 각국에 설교집과 주석과 「기독교강요」가 속속 번역되어 화란, 영국, 스코틀랜드, 불란서, 독일등에 칼빈의 사상은 깊이 파고 들었다. 칼빈은 하나님 중심 사상의 성경적인 입장을 분명히 불튼 위대한 성경신학자이면서 목회자로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9) 사실 칼빈의 生涯에 대한 첫 작품은 Theodore Beza가 쓴 “칼빈의 生涯”(Joanes calvini Vita)이란 전기이다. 이 책은 이미 1650년에 화란어로 번역되었고 최근 1986년에는 Het Leven en Sterven Van Johannes calvijn)으로 번역되었다.

10) 제네바 아카데미(de l'Académie de Grieve)는 1559년 11월11일에 시작되었다. 당시 초기 교수로는 요한칼빈(1559-1564)을 포함 학장겸 교수인 Theodore de Beza(1559-1605), chevalier, Jagaut, Berard, 등이 있었다.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을 원리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을 돌리며 하나님의 면전(Coram Deo)에서 살기를 소원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칼빈은 근본주의자가 아니라¹¹⁾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개혁해 나갈 것을 부르짖고 실천에 옮겼다. 칼빈은 단순한 사상가가 아니었다. Beza는 16년간 칼빈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칼빈에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의 가장 아름다운 실례를 지켜보았다고 증거했다.¹²⁾ 칼빈은 그 지식과 성품에 있어서도 위대한 분이였다. 친구들에게는 신망이 두터웠고 동정심이 많았다. 개인의 실수에 관해서는 용서와 관용을 베풀었으나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을 때는 용서치 않았다. 끝으로 칼빈이 기독교회에 기여한 몇가지점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은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에게 심어준 셈이다. 성경에 의지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켜 갔고, 성경의 충족과 권위를 확고히 믿고 고백 하였다.

둘째로 칼빈의 업적은 장로회의 정치틀을 세운것인데 이것은 칼빈의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졌다.

셋째로 칼빈의 기여는 이른바 “시민사회”(Civil Society)에 관련된 그의 교회이다. 칼빈의 정치제도관을 이른바 성경정치(Bibhocracy)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치형태가 어떻든간에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국가의 최우선적 의미는 성경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1) A. G. Dikens, Reformation and Society in sixteenth-century Europe(Thames and Hudson, 1979), p. 154.

12) R. C. Reed, The Gospel as Taught By Calvin, 칼빈주의 뿌리와 열매(교회교육연구원, 1985), p. 20.

100 教育論叢(Ⅳ)

넷째로 칼빈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敬虔이다. 또 칼빈이 그렇게도 경건한 삶을 강조한 것은 당시의 암울한 사회상을 교정하려는 염원에서 비롯된다.

다섯째로 칼빈의 공헌은 신학적 체계를 잡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신학은 엄밀히 말하면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 신학의 재진술이다. 칼빈은 성경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주권, 以信得義, 예정론등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대로의 진술이다.

三. 칼빈의 教育

1.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그의 見解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고백했다. 다른 개혁자들과 같이 칼빈도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말씀안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주권자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다고 고백하였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지의 표현이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피조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위해 피조물을 격하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 무엇인가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뜻대로 복종하고 행하면 되는 것이다. 창조에 관한 성경의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적인것, 그리고 인간행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의지와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



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당시 피조물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나가 문제이다. 하나님은 절대자이며 주권적인 창조주이며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그가 창조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의 창조지에 복종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도 없다. 아주 사사로운 것 까지도 그분을 계시한다. 더우기 그분의 주권적 창조의지는 인간적인 것, 인간의 업적의 영역에 속한 것, 인류역사 전체와 문화발전에 속한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율법에 표현된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서는 논리적이고 간단하며 포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을 구분했던 흔적은 없다. 사실상 우리는 창조자와 피조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성경의 교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성경교리를 철저히 이해할 때「하나님」, 「인간」이라는 두 용어를 혼용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함정을 피하려면 칼빈과 같이 피조물의 범위안에서, 하나님 계시의 地平아래, 그분의 율법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창조지의 영역안에서 사고를 전개해야 한다. 피조물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의지에 동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칼빈은 생각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의 자연의 상태에 답변하는 것이요, 창조시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선포하신 것에 답변하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열정을 가지고 자연과학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인간의 재능의 산물들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종교를 떠나서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다만 종교와 연관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내면에 심기워진 것이었다. 분명히 인류는 죄 때문에 본질적으로 타락했으며,

102 教育論叢(Ⅳ)

따라서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심각한 왜곡이 뒤따랐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자연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부자유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지혜에 응답하지 않는것, 그의 법에 참되게 순복하지 않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부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선물들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베풀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영향을 받아 示顯된 진리는 그것이 어느 곳에서 발견되든지 인정되어야만 한다.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지혜에 반응하게 하신다.¹³⁾ 이와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가지 교훈들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대한 인간정신의 업적이 나타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칼빈의 견해는 인간의 신지식과 자아에 관한 지식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있다. (Dei notitiam et nostri resesse coniunctas)는 유명한 기독교 장요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¹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비추어서 자기자신을 알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참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한다면 인간이란 자기자신을 참되게 알 때 비로소 하나님도 참되게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때 자기자신과도 참되게 연관되는 것이며, 자기자신과 종교적으로 연관될 때 하나님과도 참되게 연관되는 것이다. 칼빈은

13) 칼빈의 자연법 사상은 스토아학파의 그것과는 달리 보편적인 우주적 이상개념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조 및 창조질서에 관한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칼빈은 하나님의 「보통」 혹은 「보존」의 은총교리를 인정하고 있다. Bohatec은 칼빈의 자연법 사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그는 그 사상을 창조교리와 연관시키면서 칼빈이 어떻게 일반은총교리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Joseph Bohatec, *calvin und das Recht*(Graz:Hermann Böhlau, 1934), pp. 22-24.

14) Calvin, *Institutes*, I. 1. 1. cf. Bohatec, *Bude und calvin*, p. 243.

인간의 인간성을 깊이 있게 꿰뚫어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깊이있는 인식은 인간의 자율적 인격을 인정하고 인간가치의 창조적 근거가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한 문예부흥의 보편적 인간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인간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왜곡된 죄악의 결과, 인간과 세상을 위한 구원계획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등 등의 인도함을 받았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인간성이라는 개념을 성경에 묘사된 종교적 반명제에 관련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안에서 존재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여기서 배태되어 나왔다.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다워지려면 본성적 상황에 답변해야 하며 창조의 목적에 부응해야 한다.¹⁵⁾ 이처럼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자율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로서 이해하고 인간의 자기 인식으로 향한 大路로부터 멀리 벗어나 죄악된 인간의 자율성 그 자체가 인간적인 것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같은 배경을 무시하고 인간과 인간행위의 결과들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또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인간이 하는 일과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주권적 창조 의지를 통해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과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 인간의 행위, 그 행위의 여러가지 산물에 관한 어떠한 생각도 그 종교적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탐구되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하는 인간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는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모든 것과 모든 인간적인 업적에 첨가된 부자연스러움을 인정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구속의 능력에 맡길 마음의 준비

15) Bohatec의 견해에 따르면 칼빈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인간은 자원하여 합리적 규범에 복종한다고 한다. Bohatec, Budé und Calvin, p. 352.



104 教育論叢(Ⅳ)

가 늘 되어 있는가? 를 스스로 확인해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두 회복하여 먼저 하나님앞에 거룩하고 진실되며 이웃에게는 지혜롭고 의롭게 처신하여 무섭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도록하여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보용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받아¹⁶⁾ 다시는 이 땅에 가진자와 없는자의 싸움이 없고 진정 민족과 조국의 영광될 일들이 계속되며 온 인류가 예수그리수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 하는 바이다.

2. 칼빈의 교육적 공헌

한 사람의 종교개혁자가 끼친 공헌을 다 언급하기란 그 방대함과 내용에 있어서 심히 어려움으로 여기에서는 위대한 개혁자이며 교육가인 칼빈의 교육에 끼친 공헌을 몇가지 제한된 각도에서 조명 하려고 한다.

A. 성경교육에 미친 영향

칼빈의 신학적 배경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성경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는 「기독교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정신은 무력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식에도 도달할 수 없다¹⁷⁾ 만일 참다운 종교를 조금이라도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하늘의 교훈을 받아야 하며 또한 누구든지 성경의 弟子가 되지 아니하고

16) 잠언 22장4절 :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용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17) Inst., 1:6:1



서는 정당하고 건전한 교리의 가장 작은 조각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¹⁸⁾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다. 그 안에는 알아서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알아야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¹⁹⁾ 칼빈은 그의 신학과 사상을 성경의 토대위에서 전개하여 나간다.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도 성경이라고 보았다.²⁰⁾ 성경에 대한 그의 생각은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講解하였고 각종 주석들을 통하여 성경해석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에 와서도 개혁신앙의 바탕이 되며, 성경을 토대로 한 참신앙을 추구하게 한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서도 성경이 바탕이 되며 성경이 교육의 바른 원리를 제시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칼빈의 영향이다.

B. 人文主義敎育에 미친 영향

칼빈은 성장기에 人文主義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인문주의에 한때 심취하였으나 여기에 몰입되었다기 보다 이것을 뛰어넘어 성경을 이해하는 道具로서 활용하였다. 그는 古典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일반 지식의 효능을 무시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글을 읽으라,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작품도 읽으라,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대들을 매혹

18) Inst., 1:6:2

19) Inst., 3:21:3

20) C. Gregg Singer, John Calvin; His Root and Fruits (Grand-Rapids; Baker Book House, 1967), p. 56.



106 教育論叢(Ⅳ)

시키고 즐겁게 할 것이며, 또한 감동을 주어 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대는 성경을 읽는데 무엇보다도 열중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대 스스로가 古典을 사랑하고 즐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깊게 그대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그 말씀이 그대의 가슴속에 스며들어 그대의 매우 좁은 識見을 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깊은 감명은 고전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고대의 웅변가들과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힘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모든 천부적인 것과 아름다운 것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神的인 것을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²¹⁾ 우리는 世俗作家들의 작품을 볼 때마다 그 작품속에 빛나고 있는 놀라운 진리의 빛을 통하여 비록 타락하였으나 인간의 정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뛰어나신 은사로 옷 입혀져 있고,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²²⁾ 칼빈은 古典教育이 그리스도의 교훈보다는 못하지만, 인간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의 이와같은 견해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에서 나타나는데 그는 여기에서 인문교육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기독교 대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C. 生活教育에 끼친 영향

칼빈은 제네바 시민의 生活訓練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리스도인의 生活훈련은 倫理的 理想과 목표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칼빈의

21) Inst., 1:8:1.

22) Inst., 2:2:15.

경건훈련은 바른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하며²³⁾ 生活神學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증진시키게 한다. 바울은 우리의 선택의 목적을 우리가 기록하고 흠없는 생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만약 선택의 목적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자극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태만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²⁴⁾ 칼빈은 그의 교육활동에서 생활훈련을 강조하였다. 敬虔訓練을 통하여 全人格的 變化를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의 질서와 시민생활의 질서를 강조하며, 이것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다. 요리문답을 철저히 가르치고 비윤리적 요소들을 배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생활교육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과 연결된다. 모든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업이며²⁵⁾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생업이라면 賤業이나 貴業이 따로 있지 않다고 하였다.²⁶⁾ 이와같은 직업관은 청지기로서의 직업관을 형성하며, 또한 召命으로서의 직업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칼빈의 이러한 사상은 근대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노동을 통하여 創出되는 여러가지 재화는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칼빈은 노동은 귀한 것으로 보고, 태만은 죄악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평안만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²⁷⁾ 칼빈의 생활교육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까지 이르게 하며, 그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적 生活哲學은 근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룬다.²⁸⁾

23) 한철하, op. cit., p. 79.

24) Inst., 3:23:12.

25) 김의환, op. cit., p. 81.

26) Inst., 2:3:10.

27) Comm, on Harmony of the Evangelists, pp. 443-444.

28)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권세원, 강명규역(서울 : 潮閣, 1971)을 참조하면 이 원리에 대하여 알 수 있다.



108 教育論叢(IV)

D. 칼빈의 중요한 교육사상

칼빈의 저작들에 나타나는 교육사상을 그 중요한 영역을 따라 요약 한다면²⁹⁾

(1) 칼빈 교육사상의 기초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사상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신앙과 더불어 유일한 권위이다.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경은 最高最終의 권위를 가진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들이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2) 教育의 對象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교육을 받아야 할 對象은 人間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지식에 관한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으며, 인간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被教育者에 對하여 알아야 한다. 인간에 관한 지식이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며³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였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百姓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3) 教育의 目標

칼빈이 추구하는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生活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른 모든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기부정(Self-Denial)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³¹⁾ 칼빈은 종교교육 못지않게 人

29) J. chr. Coetzee, op. cit., p.201.

30) Ibid., p. 215.

31) Ibid., p. 217.

文敎育을 강조하였다. 一般 敎育의 最終 목적도 하나님에 영광이다.

(4) 敎育의 主題

칼빈이 말하는 敎育의 主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다. 인간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 지식들을 얻게 하는 원천은 성경과 自然이다.

(5) 敎育의 方法

칼빈이 강조한 敎育의 方法은 그의 代表力作 기독교강요에서 찾을 수 있다.³²⁾ 敎育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즉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重生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경과 自然의 啓示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인간의 方法이다. 바른 敎育을 위하여 신앙을 가져야 하고, 자기부정, 기도, 묵상, 善行등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

(6) 敎育의 內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이 일을 위하여 訓練(discipline)하여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訓練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권위와 자유가 있어야 한다.³³⁾

(7) 敎育의 領域

칼빈은 敎育의 영역을 가정, 교회, 학교 그리고 국가로 보았다.³⁴⁾ 학교를 통제하는 힘은 교회에 있고, 모든 교회는 신자들을 바르게 敎育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말한 칼빈의 敎育사상은 보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언급한다면 ① 교과서로서의 聖經, ② 교사로서의 聖父 하나님, ③ 모범자로서의 그리스도, ④ 內的 교사로서의 聖靈, ⑤ 학생으로서의 人間, ⑥ 학교로서의 敎會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칼빈의 사상

32) Ibid., p. 218.

33) Ibid., p. 223. C. B. Eavey, op. cit., p. 163.

34) Ibid., p. 224.

110 教育論叢(IV)

은 그 출발점이 특이하다. 인간의 回心이나 稱義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絶對主權에 두었다.³⁵⁾ 이것은 칼빈의 중심사상으로서, 칼빈 이해의 기본적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영역도 관심의 대상이 되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으로 끝을 맺는 것이 칼빈 신학의 중요한 특성이다.

四. 結 論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유럽 및 신세계의 모든 인간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 복음주의 신앙의 강력한 재흥과 심오한 영적 혁명의 열매들을 볼 수 있었다. 이를 가리켜 루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시니, 위력을 가지고 운행하였다”라고 선언 하였다.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은 특히 인간 내부의 생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칼빈은 “복음은 우리가 단지 듣기 위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정을 완전히 새롭게 하도록 하는 영생의 씨앗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개혁은 일반 인간 사회에 속한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야 말았다.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사회 불안정과 각종 위기들과 내란과 암살과 학살로서 점철된 시대였다. 바로 이 시대에 프로테스탄트는 확장되고, 로마 카톨릭교회 내에서도 부흥운동이 이루어졌으며 제해권과 식민지를 가운데 두고, 프로테스탄트국인 영국과 카톨릭국인 스페인은 국운을 건 사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전쟁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 가운데서도 서구인들은 위대

35) Inst., 4:4:1.



한 문학적·철학적·신학적·음악적·지리적·과학적·발견과 업적들을 역사에 기록하였다. 이 역사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 우리들과 함께 살아 있으며 현재의 우리들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였으니,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종교개혁자 칼빈을 상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역사적 지식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전해지는 生成力 있는 것이라야 한다. 즉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설파하였듯이 “人生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반추해보는 수 밖에는 없으나, 이는 미래를 향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칼빈의 生涯와 敎育等を 통하여 당시의 인간들이 과연 어떻게, 어떠한 신앙과 창조력, 용기를 가지고 곤란한 시대를 극복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해 나갔는가를 깨달아 혼탁하기만 하고 절망적이며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도 먼저 창조자를 경외하고 인간자신은 죄인된 피조물로서 회개하며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인간과 세상을 고쳐주시고 아름답게 모든것을 재창조하시어 우리를 靈肉間에 구원해 주실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논문의 결론을 맺는 바이다.